

초견 교재 분석

윤 예 원*

초견은 새로운 악보를 보고 한 번에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초견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견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초견 교재들을 분석해 보고 실제 학생들의 초견 교육 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견 교재는 현재 출판 중인 알프레드, 아마데우스 클래스, 피아노타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패턴연습과 건반 감각 기르기를 위한 연습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알프레드는 음정, 화음, 리듬 중심의 패턴 연습과 건반에서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손가락 연습을 중시하였으며, 아마데우스 클래스는 반주 또는 다른 악기와의 앙상블을 위한 초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피아노타임은 다른 교재와는 달리 기억력 증진 훈련과 음악의 흐름을 예측하는 훈련을 포함하였다.

* 주제어 : 초견, 피아노 교재, 패턴 읽기, 건반 감각 기르기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초견 교육 및 초견 교재
2. 선행연구

III.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1. 패턴 읽기
2. 건반 감각 기르기
3. 예측 능력 키우기

IV. 초견 교재의 구성 및 내용

1. 알프레드 초견교재
2.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
3.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

V. 초견 교재 비교분석

1. 리듬패턴 연습
2. 선율패턴 연습
3. 조성패턴 연습
4. 건반 감각 기르기 연습

VI. 결 론

*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

I. 서론

초견이란 새로운 악보를 보고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견 연주를 위해서는 음표를 읽는 단순한 독보 능력뿐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음악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음악적 표현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초견은 단지 오랜 시간 피아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으로 인식되어져 초견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초견 교육이나 교재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견은 연주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의 하나이며 선천적인 소질보다는 후천적인 연습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다(음악편찬위원회, 1974, p.1162).

초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초견의 개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과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관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초견 연구는 TypeWriting시 눈 운동 연구(Butsch, 1932)를 시작으로 음악 읽기에서의 눈과 손과의 간격 실험(Weaver, 1943; Sloboda, 1974), 초견에서의 눈의 움직임에 관한 실험(Jacobson, 1942; Young, 1971; Goolsby, 1987; Kinsler and Carpenter, 1995) 등 눈 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초견 연주 시 어떠한 형태로 음악을 기억하는가에 관한 연구와 음악읽기와 언어읽기의 유사성 비교에 관한 연구가 있다.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눈 운동, 건반에서의 손 감각 기르기, 예측훈련, 기억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견 교육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초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방해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초견 교육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초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초견 교육용 교재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교재 중에서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 출판되고 있는 피아노 기초 교재인 알프레드 초견 교재와 피아노 타임 초견 연습을 분석하고, 국내

교재 중에서는 아마데우스 클래스의 부 교재인 보충 연습곡을 분석한다.

분석의 관점은 각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리듬, 조성, 선율- 화음- 음정, 건반에서의 손 연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견 교육의 방법들 중 초견 연주 시 음표를 패턴으로 인지함으로써 보다 빠른 악보읽기를 도와주는 '패턴연습'과 눈으로 지각한 악보를 즉각적으로 연주 하기위해 필요한 '건반 감각 기르기' 훈련을 각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과 지도 시 유의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피아노 교육 초기부터 체계적인 초견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대부분 피아노 학습의 초급자인 초등학교 학생들로 제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견 교육 및 초견 교재

초견 능력이 좋은 사람은 한번에 '음표모양-악보'의 형태를 지각하고 바로 연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보 상의 음표들을 모양이 아닌 각 각의 음표들로만 지각 하거나 음악적 특징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초견 교육은 눈으로 악보를 인지하고 바로 손으로 연결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음표를 지각하는 것에만 국한 되는 연습은 아니다. 초견 교육의 중요성은 초견 교육 시 눈의 움직임이 잘 훈련되면 악보 상의 음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연주 시 그것을 인지하고 기억함으로써 음악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데 있다.

피아노 중급자의 경우 초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초견 교재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다양한 곡을 응용하여 초견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도이치(Deutsch, 피아노 초견법, 2000, p.25)는 초견 곡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소나타의 쉬운 곡들, 2 단계는 바흐의 프렐류드, 하이든,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슈베르트의 춤곡,

3단계는 바흐의 프랑스와 영국 모음곡, 베토벤의 소나타, 쇼팽의 왈츠, 마주르카, 멘델스존의 무언가등 이다.

피아노 초급자의 경우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많은 교재들을 개발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초견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초견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초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초견 교재들을 출판하고 있다. 외국의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알프레드, 베스틴, 피아노타임 등의 교재에서는 부 교재로 초견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데우스 클래스에서 초견 연습을 위한 보충 연습곡이라는 교재를 통해 초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초견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와 초견 능력 향상에 관한 방법론적 관점의 연구로 나뉜다.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초견 연주 시 악보를 지각할 때의 눈의 움직임과 기억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초견을 고찰한 용희선(1993)은 눈 운동과 기억에 관한 1974년 슬로바(Sloboba)의 실험을 중심으로 초견 연주 시에 악보 인지과정에 관해서 설명했다. 슬로바다는 기억에 관한 실험에서 음악적 자극이 2초 이상 계속되고 음이 4개 이상 들려질 때 음악가 그룹이 비 음악가 그룹에 비해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음을 기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악가는 악보를 인지할 때 시각적으로 인지한 후 비 시각적으로 다시 기호화 즉, 그룹핑(grouping)하는데 이러한 그룹핑 능력은 악곡의 구조에 관한 음악가의 지식을 근거로 하며 초견 연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선희(1993)는 많은 음악 독보에 관한 시각적 연구들에서 눈의 인지 과정이 초견 연주 시 표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초견 연주 시 눈을 통한 인지과정은 패턴 지각 과정으로 표출되며 연주자의 눈 운동 패턴은 곡목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프르녹스와 랜드(Furneaux and Land, 1999, pp. 2435-2440)는 눈-손 간격 실험(the eye-hand span)을 하였다.

이는 눈의 픽세이션(fixation-시선이 멈추는 것)에서 연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때 인지할 수 있는 음표의 양에 관한 실험으로 8명의 성인 피아니스트(능력 별-전문 연주자 2명, 중간 급3명, 하급3명)를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연주하는 장면을 찍어놓고 눈의 움직임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전문 연주자가 아마추어 연주자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음표를 지각 하나 눈의 픽세이션에서 연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문 연주자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관점의 연구들은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초견 연주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유정(2000)은 초견이 서투른 원인으로 악보 읽기의 잘못된 습관, 악보를 얼마나 많이 다루었는가, 이론적 지식의 소유여부, 청음 능력을 들고 있다. 초견 지도방법으로는 기보된 음표들의 특징적이고 기억할 만한 요소 찾기, 시각 넓히기, 모양읽기, 피아노 연주 시 양손 함께 치기 등 눈 훈련 방법에 근거한 지도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기억할 만한 음표의 요소란 당김음, 도약음 등을 말하며, 시각 넓히기란 초견 연주 시 화음, 선율 등 구조적으로 보다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한 번에 빠르고 많은 음표를 미리 보도록 하는 것, 모양읽기란 음표의 위치를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 하면서 읽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 눈과 손의 움직임에 관한 지도방법으로 손의 감각 기르기(건반에 대한 친밀한 손 감각을 기르기 위한 손 운동), 기본적인 패턴 읽기(한 번에 많은 양의 음표를 읽을 수 있게 하여 초견 연주에 도움을 주는 것), 예측능력 기르기(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음악적 경험 쌓기(반주, 앙상블 등을 통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도안을 작성하여 두 명의 아동을 실험, 관찰 하였다. 양현정(2001)은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기 음악교육의 분류와 고찰을 통해 단계별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초견 교육의 실시를 제안한다. 초등학교 3학년 5명의 아동을 실제 실험, 관찰한 결과 아동들의 초견 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초견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으로 리듬, 프레이즈, 조성, 시각 넓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숙자(1994)는 초견 연주를 위한 교재를 분류하고 방법론을 제시한다.

초견 지도를 위한 교재를 이론중심의 교재와 실습중심의 교재로 분류하는데, 이론중심의 교재로는 화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형식을 다루는 피아노 초견 연주법(음보 출판사, 1986), 실습중심의 교재로는 곡 연습에 중점을 두고 4단계로 구성된 베스틴(제임스 베스틴, 음악춘추사, 1991), 단계별로 1단계 손가락 연습, 전위위치 화음연습, 임시표 등을 통한 손 훈련, 2단계 리듬감을 익히는 눈 훈련, 3단계 연습곡을 통한 실습으로 구성된 초견 상달법(初見 上達法, 기술을 크게 발달시키는 훈련방법, 대장재자(大場哉子), 동경음악사, 1989), 건반 위치 익히기, 동기와 프레이즈 묶어보기, 리듬연습, 선율연습, 연습곡의 총 5단계로 구성된 Introduction to sight reading(W. Keilann, New York, C.F.Peters, 1972) 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견 연주와 언어 읽기는 구조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성숙(2001)은 초견 연주 시 악보 읽기를 언어 읽기와 비교하여, 언어는 수평적이며 그 단위가 분명한데 반하여 음악은 수평과 수직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단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초견 연주를 위해서는 모양 읽기, 미리 읽기(시각 넓히기), 패턴 읽기, 손 운동을 통해서 음표들을 지각이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르멘(Carmen, 1999)은 '언어 읽기를 잘 하는 학생이 음악 읽기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 읽기와 언어 읽기와의 관계에 관한 실험을 다루고 있는데, 5세에서 8세까지의 12명의 아동들을 실제 레슨을 통해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읽기 능력과 음악을 읽는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비례함을 보였다. 즉,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음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며 그러므로 음악 읽기의 향상을 위해서는 읽기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음표를 눈으로 지각하고 손으로 연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한 연구와 음표를 지각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패턴 지각을 위한 기억에 관한 연구,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한 후 관찰한 결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Ⅲ.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초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선행 연구 자료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패턴 읽기

패턴 읽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음표를 패턴으로 인지함으로써 초견 연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음악의 패턴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한 인식으로써만 가능하다. 눈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점프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표를 지각함에 있어서도 음표의 윤곽, 리듬패턴, 조성패턴등과 같은 패턴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하여 음악적 단위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장을 읽을 때 글자의 경우 뚜렷하게 패턴이 구분 지어지는 문법적 단위가 있으므로 쉽게 인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악의 경우 연주자가 그 나름대로 지각이 가능한 형태로 패턴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패턴에 대한 지식과 이를 위한 초기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음악적인 패턴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리듬패턴, 선율패턴, 조성패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가. 리듬패턴: 선율과 화성은 한 눈에 파악될 수 있으나 리듬은 한 눈에 파악되기 어렵다. 혹 인식 하였다 하더라도 신체로 직접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연주될 수 있다. 정확하지 못한 리듬은 음악적 흐름을 깨뜨리며 템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리듬 연습(당김음, 부정 등)은 이론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신체훈련을 통해서도 되어져야 한다.

나. 선율패턴: 선율의 윤곽은 선율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룹 지을 수 있다. 방향에 따른 상, 하, 제자리에서의 반복으로 나뉘며 움직임에 따른 순차와 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초견 연주 시 음악을 프레이즈로 나누고 시각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선율패턴의 흐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율패턴은 음정의 패턴, 화음의 패턴, 반복하는 선율, 음계의 패턴으로 나뉜다.

다. 조성패턴: 악보의 음을 건반에서 제대로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조를 정확하게 손가락에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음악의 성격 상 가능한 빨리 음계 학습을 시작하고 꾸준히 연습하여야 한다. 도이치(피아노 초견법, 2000)는 초견을 지도함에 있어 "초보자는 처음부터 다양한 조성으로 연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만일 학생들이 오랫동안 쉬운 조들로만 연주한다면 더 어려운 조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할 때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조성패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건반 감각 기르기

아무리 좋은 독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건반에 대한 손 감각이 없으면 빠른 초견 연주를 할 수 없으며, 건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초견에 있어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건반만 보고 연주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반에 대한 친밀한 손 감각을 기르기 위해 건반에서의 자리이동, 도약음 연습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3. 예측 능력 키우기

박자, 조표, 빠르기 표시를 먼저 읽고, 패턴을 본 후에는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측 능력 키우기'이다. 앞서 연주한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다음번에 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이를 기억함으로써 하나의 패턴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예측 능력은 피아노 중급 이상자들에게 요구되는 초견 연습으로 멜로디의 흐름 예측뿐만 아니라 하모니의 진행 부분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IV. 초견 교재의 구성 및 내용

초견 교재는 초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연습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견 교재의 내용과 구성을 주 내용인 리듬, 선율-음정-화음, 조성, 건반에서의 손 연습의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각 교재 별로 살펴본다. 각 교재 별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1. 알프레드 초견교재

팔머(W. A. Palmer), 매누스(M. Manus), 렛코(A. Lethco)가 만든 피아노 교재로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던 피아노 교본의 장, 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1-6급까지 단계별로 레슨, 이론, 테크닉, 응용 연주곡집, 청음 교재, 초견 교재가 있으며, 검은 건반을 이용한 건반학습, 말을 이용한 리듬교육, 낮은음자리표 우선 학습, 음정에 대한 학습 등을 포함 한다. 또 오선보 도입 이전에 한 줄 악보를 먼저 제시하여 악보가 주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조 옮김의 개념 학습을 통해 건반의 모든 영역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단점은 단음계의 연습 양이 적고 다섯 손가락의 위치를 고정시켜 움직이므로 손가락이 다섯 음에서만 위치를 찾게 되며 계이름 대신에 손가락 번호를 보면서 연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알프레드 초견 교재에서는 처음부터 박자표가 제시되지 않는다. 즉, 박자 안에서 음표의 길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음표의 길이를 먼저 익히는 데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다양한 연습곡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음정을 익히는 방법 또한 레슨 교재의 건반 그림을 통해 오선의 줄과 칸의 개념을 익힌 후 음정 간격을 익히는 시각적 방법과 일정한 손가락 번호를 제시하여 손 감각으로 음정을 익히는 방법 모두를 사용한다.

음계는 먼저 사 장조를 다양한 리듬과 음역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조성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음계를 익히고 난 후에는 각 조성 별로 주요3화음을 I, IV, V7화음의 형태로 제시며 IV, V7화음은 선율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원활한 손의 이동을 위해서 전위형태로 소개된다.

<그림 1>은 박자표 없이 음표의 길이를 익히는 것과 박자 표 안에서 음표 길이 익히기의 예 이며 <악보 1>은 음정 간격 익히는 방법이다. 도의 자리에서 2~5도까지의 음정 간격을 손가락으로 익히기 위한 연습으로 음정간의 간격을 손 감각으로 비교하게 하기 위하여 손가락 번호 '1번'을 고정하나 익숙해지면 번호를 각기 다르게 제시한다.



<그림 1> 음표의 길이 익히기(알프레드 초견교재 1급(상) p2,8)



<악보 1> 음정 간격 익히기(알프레드 초견교재 1급 (상) p17,18,21,23)

2.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

아마데우스 클래스 교육은 무의미한 손 연습만을 위주로 하는 재래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 활동을 통해서 폭 넓은 음악세계를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수업 방식이며, 비슷한 연령의 유아들을 작게는 3-4명 많게는 10명으로 그룹을 지어 지도한다. 하나의 교재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한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교육은 신체 표현 활동, 창의적 연주, 창작 학습을 통한 창

의력 개발, 다양한 소리 탐구, 음악 감상 및 체계적인 청각 훈련을 통한 청음 능력개발, 모든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통한 포괄적인 음악성을 기른다. 또한, 음악 게임과 놀이, 음악 동화 학습을 통해 음악적 상상력 기르고 다양한 리듬 율동, 리듬 양상블, 리듬게임 학습으로 리듬감을 키운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마데우스 클래스의 교육 방법은 지나치게 놀이 위주의 학습 방법으로, 그 대상이 국한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음표와 다, 바, 사 장음계를 동시에 제시하며 박자는 4/4, 3/4, 2/4박자 순으로 제시된다. 단조는 장조와 나란한조가 아닌 같은 으뜸음 조 순서로 소개된다. 아마데우스 클래스의 독특한 방식으로는 조옮김의 예비 연습곡이 많이 등장하며 안내음을 제시하여 음 이름과 건반의 자리를 같이 외우도록 하는데 있다.

<악보 2>의 연습곡 '춤추자'는 동일한 곡을 C Major와 F Major로 제시하여 조옮김 연습을 예비하게 하며 <악보 3>은 아마데우스 클래스에서만 제시되고 있는 안내음을 통한 음이름 익히기를 설명이다.

C 장음계 위치

높은음 자리표 C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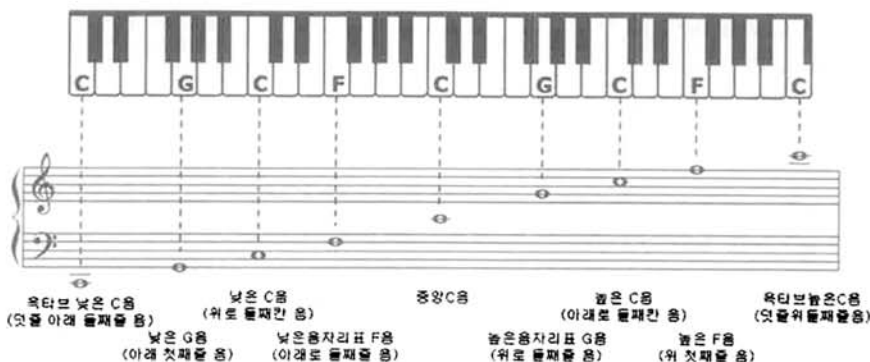
C: I 장3화음 본산화음

F 장음계 위치

높은 C음 내림표 B

F: I

<악보 2> 보충 연습곡- '춤추자'(아마데우스 보충 연습곡 1권 p24~25)



<악보 3> 안내음(아마데우스 보충 연습곡 1권 p4~5)

3.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내놓은 새로운 피아노 교수법으로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이론과 실습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새로운 내용을 익힌 후 바로 응용 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퍼즐과 퀴즈를 통한 이론 공부, 쉽고 재미있는 가사의 사용, 비밀암호 등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한다.

템포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항상 박자를 세면서 연주할 것을 제안하며 음표에 관해서도 '셋'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음표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박자는 3/4, 4/4, 2/4박자 순으로 제시된다. 3/8박자는 3/4박자와 비교 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6/8박자는 3/8박자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음정에 관한 설명은 3도 음정을 가장 먼저 제시하며 건반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또한 각 음정을 듣고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성은 처음부터 다, 사, 바장조 조성을 동시에 연습곡에서 바로 제시하는데 다, 사, 바 라 장조에 국한 한다. 음악적인 표현은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 <그림 2>는 피아노타임 초견교재에서만 사용되는 비밀암호로 박자표-시계그림으로 붙임줄-넥타이그림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눈동자로

나타낸 것이며 <악보 4>는 헛표를 음표와 동일시하여 인식시키기 위한 연습곡이다. <악보 5>는 3/8박자와 3/4박자의 비교를 위한 연습곡이다.



박자표를 보세요. 큰소리로 박자를 세면서 곡을 연주해 보세요



이 암호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잘 살펴 보세요. - 잘 모르는 음이 있지는 않나요? 어디에 그런 음이 있는지 찾아 보세요. 반복되는 음들이 있나요? 어디에 있죠? 검은 건반을 치는 손은 어느 손인가요?



타이(불임줄)가 있나요? 타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림 2> 비밀암호(피아노타임 2권 p3)



<악보 4> 음표와 헛표 길이 익히기(피아노타임 초견연습 2단계 p26)



다음곡을 연주해 보세요

다음 곡 역시 옆의 곡과 똑같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예요

<악보 5> 3/8박자(피아노타임 초견연습 3단계 p21)

V. 초견 교재 비교분석

앞 장에서 살펴 본 결과, 각 교재의 구성 내용들은 유사하나, 그 내용과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빠른 악보 읽기를 위한 패턴 연습(리듬패턴, 선율패턴, 조성패턴)과 빠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위한 건반 감각 기르기 연습을 중심으로 각 교재 별 강조점과 지도 시 유의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리듬패턴 연습

리듬패턴 연습은 리듬을 패턴으로 인식하기 위한 연습이므로 각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중 리듬에 관한 내용을 리듬패턴으로 분류한다. <표 1>은 각 교재에서 보이는 리듬패턴 연습의 강조점과 유의점을 보여준다.

<표 1> 리듬패턴 연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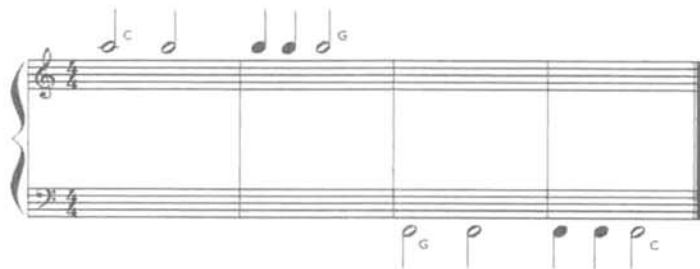
	리듬패턴 연습		
	알프레드	아마테우스	피아노타임
강조점	• 큰소리로 세기 • 리듬패턴연습-손뼉치기, 발구르기	• 4분음표와2분음표로 구성된 리듬형 연습곡 • 리듬패턴 언급 없음	• 박자를 세면서 연주 (템포의 일관성유지) • 리듬 익히기에 관한 부분을 따로 언급
유의점	• 4급에서 난이도가 높아짐 • 외국의 민속리듬 사용	• 리듬패턴 보충 연습이 요구됨	• 박자세기가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1) 각 교재 별 강조점

알프레드 초견 교재는 리듬악보를 제시하여 다양한 리듬패턴에 익숙하

게 함으로써 초견 연주 시 리듬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리듬패턴을 익히는 방법으로 큰 소리로 세기, 손뼉 치기를 제시하며, 2성부 리듬의 경우 발 구르기까지 포함한다.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음표의 길이를 먼저 익힌 후 박자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템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새로운 음표나 박자는 나올 때 마다 신체리듬을 통해서 리듬을 먼저 익힌 후에 연습곡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악보 6>과 같이 주어진 리듬패턴을 가지고 선율을 작곡하게 함으로써 즉흥연주를 예비한다.



<악보 6> 리듬패턴 가지고 선율 만들기(알프레드 초견교재 1급(상) p16)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리듬 패턴에 관한 언급이 따로 되어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4분 음표와 2분 음표로 이루어진 간단한 리듬 형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초견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항상 박자를 세면서 연주할 것을 강조한다. 박자를 숫자로 세면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초보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박자와 일정한 템포를 유지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리듬을 익히는 방법으로는 신체 리듬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듬패턴을 다룬 부분(chapter)에서는 충분히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연습곡을 제시한다. 또 연주 상으로 익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다음 <악보 7>은 박자세면서 연습하기의 예이다.



<악보 7> 박자 세면서 연주하기(피아노타임 초견연습 2단계 p3)

2) 각 교재 별 유의점

알프레드 초견교재에서는 신체를 통한 연습 방법과 리듬패턴을 통한 작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리듬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있지만, 4급에 가서 너무 많은 양의 새로운 리듬 패턴이 제시된다. 또 국내 교재가 아니므로 블루스 리듬 혹은 락 템포 등의 연습곡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민속 리듬에 관한 보충 교육이 요구된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리듬패턴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아 자칫 리듬에 관한 연습을 소홀히 하기 쉽다. 전체적으로 리듬 패턴에 관해서 더 많은 연습이 요구된다.

피아노 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리듬에 관한 부분이 신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익히기 보다는 설명이 많아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고 일정한 템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박자를 세면서 연주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초보자의 경우 이 때문에 악보읽기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습이 요구된다.

2. 선율패턴 연습

선율패턴 연습은 선율의 전체적인 윤곽의 특징, 도약하는 선율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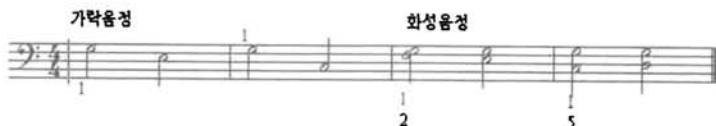
음정 간격, 선율 안에서 화음을 패턴으로 인지 하기 위한 연습이므로 각 교재들의 구성 내용 중 선율, 음정, 화음을 선율패턴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은 각 교재에서 보이는 선율패턴 연습의 강조점과 유의점을 보여준다.

<표 2> 선율패턴 연습 비교

선율패턴 연습		
알프레드	아마테우스	피아노타임
• 음정, 화음 연습중심 강조점 • 선율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인식	• 앙상블을 위한 왼손 반주패턴에 중점 • 프레이즈 연습	• 음정 익히기에 적합한 선율패턴 • 프레이즈 연습
• 3화음에 비해 7화음 연습부족 유의점 • 선율패턴의 다양성이 요구됨 • 프레이즈 연습 부족	• 음계, 음정에 관한 연습 부족	• 화성선율 연습 부족

1) 각 교재 별 강조점

알프레드 초견 교재에서 선율패턴은 음정과 화음연습 위주로 구성된다. 음정간격을 각 자리에서 먼저 익힌 후 연습곡을 통해 도약하는 선율 속에서 음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보 8>은 악곡에서의 가락스런 음정선율과 화성스런 음정 선율의 예이다.



<악보 8> 가락스런 음정과 화성스런 음정(알프레드 초견교재 1급(하) p2~3)

3화음은 모음 화음과 펼침 화음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며 <악보 9>와 같이 왼손 반주를 통해 연습하게 함으로써 선율 속에서 자연스럽게 3화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악보 9> 펼침 화음(알프레드 초견교재 2급 p17)

초견 교재 2급에서 등장하는 선율선 만들기는 즉흥연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비연습으로 알프레드만의 독특한 방식이다(<악보 5> 참조). 전체적으로 음정과 화음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음악의 선율을 수평적으로 인식 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화성 구조를 인식하는데도 매우 유익하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양상블을 중요한 초견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반주 패턴이 제시된다. 음정 간격을 익히는 것도 오른손의 선율 뿐 아니라 왼손 반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있으며, 3화음의 구성 음과 진행도 왼손의 다양한 반주패턴을 통해 익히게 한다. 악보를 미리 보는 연습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음 마디의 음표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선으로 표시 하고 있으며, 덧줄 음표가 나오는 선율의 연습곡이 많이 제시된다.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복잡한 선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화음, 선율, 음계 등의 연습 보다는 음정 익히기에 적합한 선율을 사용한다. 음정의 설명은 줄과 칸의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건반의 그림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레이즈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각 프레이즈 마다 이음줄로 표시한다. <악보 10>은 음정 익히기 연습곡이며 <악보 11>은 이음줄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프레이즈

연습법이다.



<악보 10> 3,4,5 도 음정 익히기(피아노타임 초견연습 2단계 p39)



<악보 11> 프레이즈 연습(피아노타임 초견연습 3단계 p31)

2) 각 교재 별 유의점

알프레드 초견 교재는 7화음이 3화음에 비해서 그 연습곡이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선율 패턴의 연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복음, 동형 진행 등 다양한 선율패턴 연습이 요구된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은 음정연습이 왼손 반주에서만 사용되므로 음정간격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는 자칫 도약 선율을 연주할 때 학생들이 음정간격에 관한 모양 읽기를 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며 오른손 선율의 특징적인 요소인 화성, 동형진행 등을 간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사가 따로 학생들에게 지적하고 지도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은 가락 음정에 관한 연습만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화음으로 된 선율을 빠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음계와 3화음을 이용한 선율의 연습도 부족하다. 3화음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이해와 3화음을 선율 선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통해 음악을 수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요구된다.

3. 조성패턴 연습

조성패턴 연습은 익숙한 조성 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습이므로 각 교재의 구성 내용 중 조성에 관한 내용을 조성패턴으로 분류 한다. <표 3>은 각 교재에서 보이는 조성패턴 연습의 강조점과 유의점을 보여준다.

<표 3> 조성패턴 연습 비교

	조성패턴연습		
	알프레드	아마데우스	피아노타임
강조점	• 손자리 익히기를 통한 조성감각 익히기 • 테트라코드를 통한 장음계 설명 • 각조의 음계 주요 3화음 연습 • 장, 단조의 비교, 반복학습	• 조옮김 연습에 중점 • 단조를 같은 으뜸음조로 제시	• 다, 사, 바, 라 장조만 제시
유의점	• 테트라코드의 용어상의 어려움 • 화성 단음계만 제시됨	• 나란한조 설명필요 • 내림표 조성언급 부족	• 조성, 단조 언급 부족

1) 각 교재 별 강조점

알프레드 초견교재는 ‘도, 솔, 레 자리’의 손자리 익히기를 통해서 조성에 관한 감각을 미리 익히게 하고 장음계의 구성에 관한 설명을 <악보 12>과 같이 테트라코드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처음부터 조성의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조성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함으로 다

른 교재에 비해서 조성에 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계속되는 반복 학습은 조성의 인지를 확실히 한다.

도(C) 테트라코드

5 온음 4 온음 3 반음 2

솔(G) 테트라코드

2 온음 3 온음 4 반음 5

오른손 테트라코드번호는 2,3,4,5,입니다.

레(D) 테트라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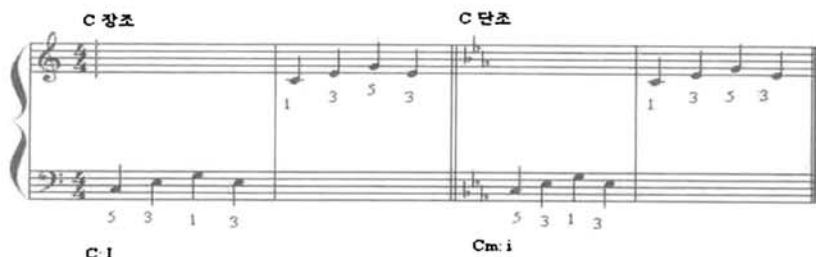
5 온음 4 온음 3 반음 2

왼손 테트라코드 번호는 5,4,3,2,입니다.

테트라코드의 음들은 항상 영어의 알파벳 순서(연속되는)로 쓰여집니다.

<악보 12> 테트라코드를 통한 손자리 익히기(알프레드 레슨교재 1급(하) p40)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은 전체적으로 조 옮김에 관한 연습에 중점을 둔다. 같은 선율을 서로 다른 조성으로 연주 하게 함으로써 그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손쉽게 조 옮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조를 먼저 제시한 후 단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조는 나란한조의 형태가 아닌 같은 으뜸음 조의 형태를 취한다. <악보 13>은 같은 으뜸음 조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쉽게 장, 단조의 느낌을 비교할 수 있게 한 예이다.



<악보 13> 조 옮김 연습- 같은 으뜸음조(아마데우스 보충 연습곡 2권 p68)

피아노 타임 초견 연습은 다, 사, 바, 라 조성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많은 관련 연습곡들이 제시되므로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

2) 각 교재 별 유의점

알프레드 초견교재에서는 장음계의 구조를 테트라코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용어와 내용이 부담 있어 보인다. 단조의 경우에는 처음에 제시되는 가단조의 연습에만 편중되다가 초견 교재 4급에서는 한꺼번에 새로운 조성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므로 자칫 학생들이 다른 조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단조가 같은 으뜸음 조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나란한조의 설명이 요구된다. 단음계의 종류와 각 조의 음계에 관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충이 요구되며, 내림표가 붙는 조성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조성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고, 단조에 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보충 연습이 요구된다.

4. 건반 감각 기르기 연습

건반 감각 기르기는 인지된 악보를 즉각적으로 손으로 연주할 수 있기

위한 연습이므로 각 교재의 구성 내용 중 건반에서의 손 연습을 건반 감각 기르기로 분류 한다. <표 4>는 각 교재에서 보이는 건반 감각 기르기 연습의 강조점과 유의점을 보여준다.

<표 4> 건반 감각 기르기 연습 비교

건반감각 기르기 연습			
	알프레드	아마테우스	피아노타임
강조점	건반의 폭넓은 사용 고정된 손가락 번호를 이용한 음정, 화음 익히기 음악적 표현기호 제시	안내음을 통한 계이름과 건반에서의 음자리 익히기 다양한 반주패턴 덧줄, 자리표를 위한 연습곡 제시	우리말로 된 음악표현 용어 사용 손가락 번호 배제 건반의 폭넓은 사용 다양한 손가락쓰기
유의점	손가락 번호의 지나친 강조 양손을 따로 연습- 양손 초견 연주시 문제 발생 덧줄 연습곡 부족	안내음으로 인한 혼란 야기 테크닉 연습부족	손가락번호의 지나친 배제로 올바른 손 사용법을 익히지 못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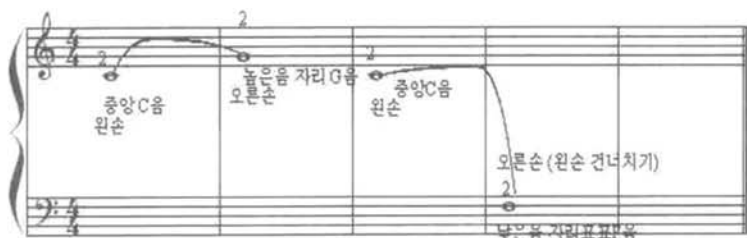
1) 각 교재 별 강조점

알프레드 초견 교재에서는 무악보로 손가락 번호 익히기를 선행한 후 건반의 자리를 이동하면서 익히게 한다. 이는 자칫 계명을 읽지 않고 손가락 번호를 보면서 연주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며, 건반의 일부분만을 사용했던 기존 교재와는 달리 건반을 폭 넓게 사용하도록 한다.

음정 간격을 익히는 것에도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고정된 손가락 번호로 음정 간격이 늘어나고 좁아지는 것을 직접 손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며 건반의 자리를 이동하면서 익히고 있으므로 한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악보 1> 참조). 화음에 있어서도 번호를 일정하게 제시함으로써 화음이 나왔을 경우 무의식적으로 한 번에 연주 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스타카토, 액센트, 셈여림, 이음줄, 붙임줄

등 음악적 표현기호도 처음부터 제시하여 학생들이 초견 연주 시 지키도록 유도한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에서는 안내음을 제시하고 이 안내음을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 처음 부분에 안내음 익히는 연습을 선행하고 있으며, 안내음 이외의 음이 나왔을 때는 안내음과 비교하여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악보 14>는 안내음을 익히기 위한 연습곡으로 오른손과 왼손이 온음표로 한음씩 제시되고 있으며 자리표도 낮은 음 자리표와 높은 음 자리표를 전부 사용한다.



<악보 14> 안내음 연주(아마데우스 보충 연습곡 1권 p6)

또, 덧줄 음표 연습 등 다양한 건반의 활용은 학생들이 건반의 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손가락 번호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익히게 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곡이 제시된다.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스타카토와 레가토 연습, 음악적 용어제시, 빠르기 말 제시 등 음악적 표현에 관한 제시를 많이 함으로써 초견 연주 시 음악적인 표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연습곡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음악적 표현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곡 전체의 분위기를 알기 쉽도록 한다. 손가락 번호는 첫 음에만 제시하는 등 거의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손가락 번호만을 보면서 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2) 각 교재 별 유의점

알프레드 초견 교재는 손가락 번호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칫 학생들이 음표를 독보하지 않고 손가락 번호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알프레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명에 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 초견 연주 시 문제가 되고 있는 덧줄에 대한 연습곡이 한 곡 밖에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항상 양손을 따로 연습한 후 양손을 함께 연주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양손 연주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마데우스 보충연습곡은 건반과 음표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초견 연주 시 비교 읽기를 위해서 안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안내음의 경우 다른 교재로 이미 피아노를 시작한 학생의 경우 많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이 요구된다. 또 아직까지는 도, 레, 미라는 이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음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고 외우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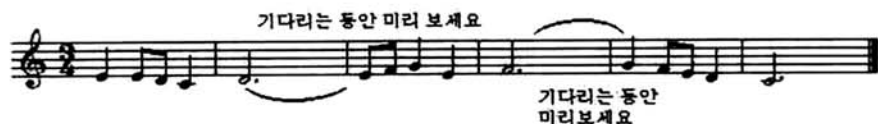
피아노타임 초견 연습에서는 곡 전체에 관한 음악적인 표현 용어(행진곡 풍으로 등)는 우리말로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마르카토 등의 용어는 원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손가락의 연습에 있어서도 손가락 번호를 처음부터 배제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칫 손가락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음 부분에는 손가락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보인다. 또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를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검은 건반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연습곡을 제시하므로 검은 건반에 대한 손가락 익히기 선행연습이 요구된다.

VI. 결 론

초견 능력은 음악 작품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앙상블, 반주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피아노 연주 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 피아노 교재인 알프레드, 아마데우스, 피아노 타임의 초건을 위한 교본을 선정하고, 초건을 위한 능력 향상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들 중 리듬, 선율, 조성의 패턴 연습과 건반에서의 건반 감각 기르기를 강조점과 유의점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알프레드 초건 교재는 선율, 음정, 화성, 조성, 리듬에 관한 많은 연습을 하고 있으나 내용의 구성이 산만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탓에 피아노 초급 수준의 아동이 다루기에는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우려가 있다. 아마데우스 클래스 보충연습곡은 앙상블과 반주곡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조성 패턴을 익히는 것에 관한 연습을 강조한다. 이 같은 다양한 음악적 활동은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며 피아노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다. 피아노 타임 초건 연습은 교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도록 전체를 이야기화 시켜서 구성한 점과 각 연습곡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기호화 시켜서 제시함으로써 악보에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초건 훈련 시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예측 훈련과 기억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사는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악보 15>는 다음마디를 미리 보고 준비하게 하는 예측훈련 연습곡이다.



<악보 13> 미리보기 연습(피아노타임 초건 연습 2단계 p15)

결론적으로, 건반에 대한 손가락 감각이 부족한 경우 알프레드 교재를 활용하여 음정과 화음 간격을 손가락 번호를 사용하여 익히고 실제 연주

시 이를 활용 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으며, 앙상블과 반주 위주의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데우스 클래스를 활용하여 보다 흥미 있는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피아노 초급 수준의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타임에서 제시하는 암호기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성숙 (2001). 초견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연구: 피아노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숙자 (1994). 피아노 초견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효율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 양현중 (2001). 아동의 피아노 초견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용희선 (1993). 초견연주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음악 편찬 위원회 (1974).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 출판사.
- 이유정 (2000).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초견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utsch L, (2000). 피아노초견법. 양일용 역, 서울: 태림 출판사.
- Butsch, R., L. C. (1932). Eye movements and the eye-hand span in typewri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 104-121.
- Carmen C.C. (1999) Relationship between textural literacy and music literacy in young children, *Queenstand Journal of Education*, 6(1).
- Furneaux, S. &M. F. Land (1999) The effects of skill on the eye-hand spand during musical sight-reading. *Proceedings of Biological*

- Science, The Royal Society*, 266(1436), 2435-2440.
- Goolsby, T. W. (1987). The parameters of eye movement in vocal music reading (sight-reading; saccad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Jan 1988.
- Jacobsen, O. I. (1942). An analytical study of eye-movements in reading vocal and instrumental music. *Journal of Musicology*, 3, 197-226.
- Jang, S. H. (1993). A study of eye movement during sight-reading of selected piano composi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Kinsler, V. & R. H. S. Carpenter (1995). Saccadic eye movements while reading music. *Vision Research*, 35(10), 1447-1458.
- Sloboda, J. A. (1974). The eye-hand span. An approach to the study of sight reading. *Psychology of Music*, 2(2), 4-10.
- Weaver H. E (1943) A study of visual processes in reading differently constructed musical selec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55(1).
- Young, L. J. (1971). A study of the eye-movements and eyehand temporal relationship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iano sight-readers while piano sightreading.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Apr 1972.

ABSTRACT

An Analysis of Piano Sight-Reading Textbooks

Yoon, Ye-Won

Sight-reading is an ability to play music with glancing at new scor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ive a guide to teaching of the sight-reading by analyzing the existing sight-reading text books. Sight-reading is an ability to play music with glancing at new scores. This paper introduces the sight-reading text books i.e., Alfred, Amadeus Class and Piano Time, and analyzes them based on the theories proposed by precedent research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lfred emphasizes the exercises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musical interval, harmony and rhythm, and finger exercises to develop the sense on a keyboard. Especially, it emphasizes importance of 'shape-reading', or skill of reading notes by unit and visual. On the other hands, Amadeus Class places emphasis on the patterns of accompaniment and transposition exercises for instrumental accompaniments and ensembles. Finally, Piano Time is constructed with much interested way compared to the other two text books. Piano Time includes memory-based practices, methods of gradual improvement in memory, and predictive practices in musical literature.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o give an insight to teachers in selecting the sight-reading text books and teaching their students based on the proposed analysis results.

Key Words : Sight-reading, Piano Textbooks, Patterns of music exercises , Finger exercises

투고일: 3월 30일, 심사(수정): 5월 6일(5월 28일), 게재확정일: 6월 3일)